채보: Tired Han



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않기로 해요



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이 없이 돌아 설 수 있을 만큼



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









